

캐나다한인 수필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아이덴티티*

송명희(부경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경제적 어려움의 토로와 문화충격 |
| 2. 거주국에 대한 인식 | 5. 결론 |
| 3. 민족정체성 인식 | |

1. 서론

전지구화와 함께 이루어진 국제 이주의 물결 속에서 700만 명의 한인들이 세계 176개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인구의 10%에 달하는 재외한인들의 민족적 유대감 조성 과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재외동포재단(Oversea Koreans Foundation)을 설립하여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문학자들도 국문학의 연구 범위를 재외한인문학으로까지 확장함으로써 재외한인문학 연구가 축적되어 나가고 있다. 다른 나라에 이민한 한인들의 한국어 문학뿐만 아니라 현지어 문학까지 재외한인문학의 범주로 포함되면서 연구자들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재외한인문학연구는 기존의 민족문학 논의가 안고 있는 폐쇄적인 ‘민족성’, ‘국가성’, ‘언어성’을 넘어서서 한국문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문학과 거주국 문학의 변방에 서 있는 재외한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체성을 제시함으로써 재외한인문학이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 자질들을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일한인문학, 중국조선족문학, 러시아CIS고려인문학과 같은 아시아지역의 한인문학뿐만 아니라 미주지역의 한인문학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한인문학에 대해서는 2009년에 들어서서 연구가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며¹⁾, 캐나다한인 수필문학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고는 한인문단이 형성된 지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으면서도 재미한인문학의 아류쯤으로 여겨져 온 나머지 아직까지 미답의 연구 영역으로 남겨진 캐나다한인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캐나다한인수필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아이덴티티’란 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민족’과 ‘국적’이 다른 캐나다한인들이 이주·정착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 및 ‘경계인’으로서의 혼란스런 삶의 양상을 ‘디아스포라와 아이덴티티’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살피고자 한다.

솔즈(Robert Scholes)와 클라우스(Cal H. Klaus)는 『수필의 제 요소』(1969)에서 수필의 작자와 독자는 문학형식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공리적인’ 형식에 속하는 유일한 인물이며, 수필의 말들은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건네진다고 했다.²⁾ 그의 말대로 수필은 독자에게 작가의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들려주며, 허구라는 장치를 거치지 않은 비허구적 성격의 장르이다. 뿐만 아니라 수필은 고백적 성격, 소재의 다양성과 내용의 개방성, 형식의 자유로움, 개성적이고 비판적인 성격³⁾ 등의 특성을 지녔다. 따라서 이민자로서 캐나다한인들이 겪어온 디아스포라와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A00118).

- 1) 송명희의 「캐나다한인문단의 형성」, 이상갑의 「경계와 탈경계의 긴장관계-캐나다한인 소설을 중심으로」, 김정훈의 「캐나다한인시문학연구」, 김남석의 「캐나다한인문학비평의 전개양상연구」 등 4편의 논문이 『우리어문연구』제34집(우리어문학회, 2009. 5)에 수록되었다. 이밖에 이동하·정효규, 『재미한인문학연구』(월인, 2003)에 「재(在)캐나다한인문학의 몇 가지 특징-시를 중심으로」가 있다.
- 2) Paul Hernadl, 김준오 역, 『장르론』, 문장, 1983, 178-179면.
- 3) 송명희, 『디지털 시대의 수필 쓰기와 읽기』, 푸른사상, 2006, 26-39면.

아이덴티티란 주제를 고찰하는 데 있어 시나 소설보다 수필이 가장 적합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재외한인문학 연구는 시와 소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밖의 장르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왔다. 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시와 소설만을 문학의 대표적 장르로 인식하며, 시·소설의 연구에만 집중하는 연구의 편향성과 관련되어 있다. 국문학에서도 수필이 연구자들의 학문적 관심을 받는 일은 드물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재외한인문학에서도 수필연구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재미한인문학이나 캐나다한인문학에서 수필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작가의 숫자나 작품의 양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캐나다한인 수필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필집을 발간한 이동렬은 캐나다한인사회에서 수필이 동포 정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한다.⁴⁾ 수필을 포함한 글쓰기는 독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기능을 띠고 있다. “이민 온 후 언제부터인가 내 속에서부터 토해내고 싶은 나만의 소리가 목에까지 차들어 오면서 다시 쓰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즐겼다가보다는 씀으로써 나를 찾게 되었다.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했다”⁵⁾는 고백에서 보듯이 고향력의 캐나다 이민자들에게 글쓰기는 절실한 자기표현이자, 갈등의 분출구이며,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원거지에서 다른 곳으로의 집단 이주를 의미하는 이산의 의미로, 민족구성원들이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산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디아스포라는 고대 그리스인의 이주와 식민지 건설이라는 능동적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다가 이후 유태인의 유랑을 뜻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다른 민족들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 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⁶⁾ 민족 이산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모국으로부터의 이주와 거주국에의 적응 사이에 작동하는 정치적

4) 이동렬, 『교민사회 수필문학의 현주소』, 『꽃 피고 세월 가면』, 선우미디어, 2006, 231면.

5) 민혜기, 「수필을 사랑함은」, 『캐나다문학』 제11집, 캐나다한인문인협회, 2003, 159면.

6)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대출판부, 2003, 4-5면.

관계, 문화적 차이, 그리고 정체성 등의 문제들을 껴안고 있다.⁷⁾

따라서 본고는 디아스포라와 아이덴티티(identity)란 주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주국 인식, 민족정체성 인식,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충격과 같은 이주민들이 겪는 전형적 문제들을 캐나다한인들의 수필을 통해 고찰해 볼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소수자이자 경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캐나다한인들이 직면한 가장 절실한 문제이며, 이들 수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캐나다한인문인협회가 발간하는 『캐나다문학』⁸⁾과 캐나다한인 수필가들의 개인 수필집⁹⁾을 텍스트로 삼아 본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캐나다문학』은 캐나다한인문인협회의 정기간행물로서 1997년부터 ‘캐나다문학(Korean Canadian Literature)’으로 그 명칭을 고정하여 2001년 이후부터는 격년으로 발간해오고 있으며, 2009년에 제14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현재 캐나다한인문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130여 명의 작가들은 이민 1세대이다. 시분과 다음으로 회원숫자가 많은 수필분과에는 34명이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문학』제13집(2007)에는 시 장르에 21명이 작품을 발표한 반면 수필 장르에는 28명이 작품을 발표할 정도로 수필은 가장 선호되는 장르이다.

현재까지 수필집(수상집)을 한 권 이상 발간한 작가로는 김영란, 김영주, 김창길, 민혜기, 박순배, 반병섭, 성우제, 손정숙, 신경용, 신영봉, 안봉자, 여동원, 원옥재,

7) Wahlbeck, "The concept of diaspora as an analytical tool in the study of refugee communiti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Vol.28, No.2, 2002, pp. 221-238.

8) 『서울』(제1집,1977), 『이민문학』(제2집,1979), 『이민도시』(제3집,1980), 『이민문학』(제4집,1981), 『이민문학』(제5집,1989), 『이민문학』(제6집,1992), 『이민문학-옮겨심은 나무들』(제7집,1995), 『캐나다문학』(제8집,1997), 『캐나다문학』(제9집,2000), 『캐나다문학』(제10집,2001), 『캐나다문학』(제11집,2003), 『캐나다문학』(제12집,2005), 『캐나다문학』(제13집,2007)으로 이어져왔다.

9) 유인형의 『캐나다에서 온 편지』(1999), 손정숙의 『아니온 듯 다녀가는 길』(2001), 원옥재의 『낮선 땅에 꿈을 세우며』(2003) 한순자의 『나이만큼 행복한 여자』(2004), 장정숙의 『어머님의 딸』(2005), 민혜기의 『흔들렸던 터전 위에』(2006), 『토론토에서 히말라야 고산족 마을을 따라』(2006), 성우제의 『느리게 가는 버스』(2006), 이동렬의 『꽃 피고 세월 가면』(2006), 『바람 부는 들판에 서서』(2008)와 장정숙·민혜기·원옥재 3인 동인지 『세 여자』(2009) 등 11권의 텍스트를 읽었다.

유인형, 이동렬, 이석현, 장정숙, 조정대, 최금란, 한순자 등이 있다.¹⁰⁾

2. 거주국에 대한 인식

캐나다로의 한인의 이민은 캐나다 정부가 유색인종에 대한 문호를 개방한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7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에서 직접 캐나다로 이민하는 숫자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미래가 불안해진 30대의 전문직·사무직 출신의 중산층 이민이 증가했고, 어학연수나 조기유학을 간 학생들도 한인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 캐나다 한인사회는 제2의 형성기를 맞이하고 있다.¹¹⁾ 제외동포재단에 의하면 캐나다에는 현재 216,628명(2007년 통계)의 한인이 살고 있다.

초기의 캐나다한인 이민자들 가운데는 기성문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석현 등을 중심으로 캐나다한인문단은 미국보다도 더 일찍 조직되어 2007년에 창립 30주년 행사를 치렀다. 1977년에 조직된 ‘캐너더한국문인협회’는 이후 명칭을 ‘캐나다한국문인협회’(1979)로 바꾸었다가, 다시 ‘캐나다한인문인협회’(2001)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을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인((Korean in Canada)이라는 인식으로 ‘캐나다한국문인협회’라고 명칭을 정했지만, 곧(2001년) 자신들이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라 ‘캐나다한인(Korean Canadian)’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임을 자각함으로써 ‘캐나다한인문인협회’(이후 문협으로 ‘약칭’)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한인’이란 한국과 캐나다 어디에도 자신을 귀속시킬 수 없는, 다시 말해 한민족의 혈통을 인정하는 한편 캐나다시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중시하는,¹²⁾ 즉 이중정체성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한인들은 일찍부터 자신들의 문학을 ‘이민문학’으로 규정지으며, 문협의

10) 송명희, 앞의 논문, 21-22면.

11) 윤인진, 앞의 책, 263-268면.

12) 윤인진, 『토론토지역 한인의 생활과 의식』, 『제외한인연구』Vol.11-No.1, 제외한인학회, 2001, 39-40면.

합동 작품집의 제호도 제2집에서 제7집까지 ‘이민문학’으로 정했다. 이석현은 「이민 문학론」에서 이민문학을 “한국적 풍토에서 전승해온 문화적 특장과 유산(사상·전통·역사 풍습 포함)을 서구적 다양문화 및 토착문화인 인디언, 에스키모의 원색문화에 접목시키는 한편, 이민생활에서 직면하는 온갖 양상-피나는 고충이며 절절한 고적감, 잠을 잃은 향수들이 혼합하여 산출되는 색다른 차원의 한국문학”으로 정의했다.¹³⁾ 즉, 한국적 문화에다 백인들의 서구문화와 캐나다 원주민문화를 접목하는 데서, 다시 말해 문화적 혼종(hybridity)에서 이민문학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캐나다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사회이다. 다문화주의란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identity)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적 질서를 뜻한다. 다문화주의는 이주문제의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1960년대 말 서구의 시민권 운동을 기폭제로 1970년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의 전형적인 다인종 국가들에서 활발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다문화주의란 다양한 문화적 주제들 혹은 소수자들의 특별한 삶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체성 정치’, 혹은 ‘정체성 인정의 정치’를 뜻한다. 이는 이상주의적 지평에서 상이한 국적, 체류 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을 뜻하는 의미로 규정할 수 있다.¹⁴⁾

캐나다 수상 튀르도는 1971년 다문화주의 선언에서 “캐나다에 공식 언어는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공식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명하며 에스닉(ethnic) 그룹간의 문화적 평등을 강조했다.¹⁵⁾ 다문화주의 이념은 1982년 캐나다 헌법에서

13) 이석현, 「이민문학론」, 『이민문학』 제2집, 캐나다한국문인협회, 1979, 63-64면.

14) 오경석,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2007, 25-26면.

15)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선언의 배경에는 34종의 민족수와 1971년 비영국·프랑스계 소수 민족집단의 인구가 26.2%를 점하며, 특히 유색소수민족의 증가와 관련된다. 1998년에 순수한 앵글로계와 프랑스계는 28.15%, 22.85%에 불과했다.(조정남, 「캐나다의 민족정책」, 『민족연구』 제6권, 한국민족연구원, 2001)

확인된 후, 1988년에는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의 기본적 성격으로 인정, 캐나다인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과 병행하여,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생활에서의 모든 캐나다인의 평등 달성을 목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취할 것을 선언”하는 세계 최초의 다문화주의법이 제정되었다. 즉, ‘다양성 유지’와 ‘평등 달성’이라는 다문화주의의 두 가지 목표가 캐나다의 중심적인 국가경영의 대원칙으로 법제화된 것이다.¹⁶⁾

하지만 다문화주의를 도입한 지 수십 년이 경과된 캐나다는, 제3세계 출신의 유색민족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을 직접적 계기로 그것의 통합이념으로서의 유효성이 다시 의문시되는 등 다문화주의 이념의 성과와 피해를 둘러싼 논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다민족 공존을 위해 다문화주의 이상의 현실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¹⁷⁾

캐나다한인문인들은 캐나다가 1971년에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시기를 전후하여 자발적으로 이민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이 이주한 캐나다가 다문화사회라는 것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 이석현의 『이민문학론』도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인문학이 지향해야 할 바를 잘 제시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민혜기는¹⁸⁾ 자신의 직업과 관련하여 삶과 죽음, 질병의 문제, 그리고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문제, 목회자의 아내로서 신앙의 문제, 히말라야 등반 경험 등을 집중적으로 작품화하고 있다. 그의 수필은 여성적인 섬세한 정서를 바탕으로 했다기보다는 남성적인 솔직한 필치로 쓴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합문화 사회 속에서』¹⁹⁾에서 그는 거주국인 캐나다가 이민자들의 나라이며, 다문화(복합문화)사회라는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서 캐나다는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인권이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우리 같은 이민자들도 차별 없는 혜택을 받으며 세금 납세자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나라이다.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생계비를 지불해주며

16) 조정남, 『캐나다의 민족정책』, 위의 책, 123면.

17) 위의 논문, 127면.

18) 캐나다에 1973년에 이민하여 28년간 너싱홈(nursing home)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의료통역사로 일하고 있다.

19) 민혜기, 『토론토 히말라야 고산족 마을 따라』, 나눔사, 2006, 148-152면.

6개월 간 영어교육을 받게” 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다. 즉, 캐나다는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고, 고액의 세금을 내지만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오며, 특히 이민자의 자녀들도 주류사회의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실력 위주의 평등사회이고, 특히 훌륭한 의료복지시스템을 가진, 다시 말해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훌륭한 사회라는 거주국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수상의 밥상이나 서민들의 밥상의 내용에 별 차이 없음이 좋았다. 고액의 세금을 내도 억울하지 않았다. 학교 선생에게 존지를 주지 않아도, 출서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각각 캐나다 주류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실력사회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더욱이 마음 놓고 아플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은 사람의 질을 높여주고 있음이 분명해졌다.²⁰⁾

여동원 역시 캐나다가 의료복지제도가 잘 확립되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으며 죽을 수 있는 나라이며, ‘진짜 살기 좋은 사회’이고, ‘지상낙원’으로 인식한다.²¹⁾ 이민자들의 이민 동기의 하나가 ‘캐나다의 높은 삶의 질’²²⁾이라 할 때에 잘 확립된 의료시스템과 사회복지제도가말로 이민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성우제는 청각장애의 아들을 위해 이민한 경우이다. 캐나다의 잘 확립된 사회복지제도,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이민의 직접적 동기까지 작용한다. 그는 한국에서 13년간 기자로서 글을 써온 전문가답게 유려한 문체로 그 어느 수필가의 글보다도 캐나다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는 캐나다가 장애인의 천국이라며, 캐나다의 의료복지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내가 장애인 처우 혹은 복지문제에 대해 남들보다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다. 나의 큰 아이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이민 온 가장

20) 민혜기, 『복합문화 속에서』, 위의 책, 150면.

21) 여동원, 『행복의 조건』, 『 옮겨 심은 나무들-이민문학』 제7집, 캐나다한국문인협회, 1995, 186면.

22) 윤인진, 앞의 책, 298면.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버스기사의 배려를 보고 나는 이민 결심을 굳혔다. 저 아름다운 광경 하나가 한 사회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판단했다.²³⁾

민혜기, 여동원, 성우제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캐나다한인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주국 캐나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초기 이민이 이루어진 1960년대 후반의 한국의 열악한 정치적 경제적 복지적 상황을 감안할 때에 사회복지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이 잘 확립된 거주국 캐나다에 대해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찬탄을 금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욱이 다문화사회로서 캐나다는 유색의 소수민족 출신의 이민자들에게도 인종차별을 비롯한 사회적 차별이 없는 공평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강보에 싸여 일본으로 건너갔고, 결혼 후에 만주, 서울, 부산 등지를 떠돌다 1970년에 이민한 김인숙은 자신에게 고향은 어디인가 반문한다. 그에게 일본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일본인들 틈에서 받은 차별, 소외, 멸시의 쓸쓸한 추억밖에 없으며, 차라리 이민 온 캐나다가 고향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동네 개구쟁이들에게 돌팔매를 맞던 학대 속에 지내야 했던 조센징 시절에 비하면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이 복합문화 사회에서 억눌린 민족으로서의 강압감, 핍박의식”이 적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그는 모국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지만 소수민족을 차별하지 않는 다문화사회인 캐나다를 제2의 고향으로 느끼는 애착을 가지게 된다. 김인숙처럼 제일의 혹독한 차별경험을 가진 한인들에게 캐나다가 표방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이야말로 캐나다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도록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최근 우리 교민 중에는 조국 땅에 방문차 갔다가 죽어서 이곳으로 돌아온 사람, 그런가하면 죽은 몸으로 고국 땅으로 간 사람도 있다. 우리는 때때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23) 성우제, 「시각장애인과 버스기사가 맞잡은 손」, 『느리게 가는 버스-캐나다에서 바라본 세상』, 강, 2006, 22-23면.

24) 김인숙, 「제2의 고향」, 『캐나다문학』 제8집, 캐나다한국문인협회, 1997, 119-122면.

조국 땅에 묻힐 것인가? 서러웠던 타향살이의 보상이라도 받는 듯한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젠 이 땅이 고향이 되었다. 자녀들이 나서 자란 곳, 그들의 고향이요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온 곳이다.

내가 선택했던 새로운 삶의 터전이기에 후세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어루만져 줄 한조각 비석으로 서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힘이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묻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할지도 모른다.²⁵⁾

박일웅도 캐나다가 제2의 고향임을 고백한다. 은퇴하여 고국에 돌아갈 것인가, 죽어서 어디에 묻힐 것인가를 캐나다한인들은 곧잘 자문하는 듯싶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귀국이 아니다. 그들은 캐나다에 남아 있을 것이며, 캐나다에 묻힐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캐나다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민자들이며, 그곳 이 후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민 1세 작가들이 보여주는, 거주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의식은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캐나다에 뿌를 묻을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한인들이 70%에 달한다는 조사에서도 잘 확인된다.²⁶⁾ 이 점은 식민치하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으로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민한 아시아지역의 이민자들과 캐나다한인들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우리나라보다 선진사회이며, 국력이 강한 북미지역에 자발적으로 이민한 이민자들은 모국으로의 귀국이 목표가 아니라 거주국에서의 정착과 적응이 목표라는 점에서 아시아지역의 이민자들과는 거주국 인식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캐나다가 법적·정책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차별과 불평등까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주의 범의 이면에는 백인들의 보이지 않는 우월감과 기존에 백인들이 형성한 제반의 틀을 개방하려 하지 않는 차별적 태도가 잔존한다. 박순배는 소수민족으로서 겪게 되는 백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월감과 차별적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리 텃세에 눌려

25) 박일웅, 「인명은 재천인가」, 『옹겨심은 나무들-이민문학』 제7집, 캐나다한국문인협회, 1995, 147면.

26) 오강남, 「캐나다한인의 민족의식과 모국관」, 『캐나다연구』 Vol.4,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캐나다연구센터, 1992, 104-105면.

지내는 소수민족의 서글픔”을 고백한다.

그가 부른 그런 자유와는 다르지만 이 땅에 이주하여 살아오면서 자리 텃세에 눌러 지내는 소수민족의 서글픔이다. 형평의 원칙이 부여되는 헌법에 보장받는 그런 자유를 누리지만 아직도 이들은 보이지 않는 사회 속에서 우월감을 앞세우고, 그들이 형성한 제반의 틀을 활짝 개방하려 하지 않는다. 동등한 대우와 권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민 1세대들은 밀거름이 되어야 하겠다. 그 발판을 딛고 후세의 앞날에 비쳐줄 수 있는 환한 여명을 제시하고 싶다.²⁷⁾

캐나다가 통합의 이데올로기로 표방하는 다문화주의가 하나의 허위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장정숙도 지적하고 있다. “복합문화주의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태도가 화합된 힘으로 캐나다를 만들어 온 정책임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다. 그러나 이민 역사가 얇은 소수민족인 우리로선 복합문화 정책 속에서 굵직한 혜택을 받을 일도 없어 사탕발림이라는 느낌을 갖는 것도 사실”²⁸⁾이라는 예리한 비판이다. 다문화주의라는 그럴듯한 겉포장 속에 잔존하는 백인들의 불가시적인 인종차별과 우월의식은 유색의 소수민족인 한인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힌다.

조금 전에 C여사가 길가에 피어 있는 들장미를 한 송이 꺾었다. 옆에 있던 L 여사에게 마침 다람쥐에게 먹이를 털어준 빈 봉지가 있었기에 장미가 봉투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안심하고 있는 터였다. 그것을 뒤에서 오던 백인여사가 보았다. “너희는 봉지까지 들고 나와서 꽃을 꺾느냐”며 샷대질을 해댔다. 백 번 잘못된 일이긴 하나 그녀의 ‘We don’t do that’ 하는 말투가 마음에 걸렸다. ‘We’가 단순한 대명사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 여사의 오만한 태도에는 그와는 다른 뜻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너희는 왜... 백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We’가 될 수 없는 ‘우리’의 의식이 편할 수가 없었다.²⁹⁾

27) 박순배,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캐나다문학』 제8집, 1997, 147면.

28) 장정숙, 「복소리」, 『어머니의 뜰』, 선우미디어, 2005, 33면.

29) 장정숙, 「‘We’와 ‘우리」, 위의 책, 16면.

아침 산책길에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들장미 한 송이를 꺾은 한인친구는 백인여성으로부터 “We don't do that”이라는 질책을 듣는다. “나는 백인여자가 말하던 ‘We’라는 말의 여운에 잡혀 있었다. ‘너희들과 다른 우리’, ‘백인과 황색인’, ‘주인과 이민자’, 그 여자의 도도한 태도는 자꾸만 이런 단어들을 내 가슴에 꽂아대어 다음날은 산책할 기분이 들지 않았다”라는 고백 속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의 이면에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의식이 엄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세계 제2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는 1970년대 이후 유색민족의 이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종전의 동화주의 대신 다문화주의를 통해 30여 개가 넘는 여러 민족 집단과 민족문화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공존시키면서도 하나의 통일적인 연방의 틀을 유지 발전시키는 장치로 ‘다문화주의’ 이념을 개발하였다.³⁰⁾ 하지만 국가적 필요에 의해 다문화주의를 표방했는지라도 이에 반대하는 집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백인우월주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니다. 실로 다문화주의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민족 간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기득권만큼은 소수민족에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전략이다.³¹⁾ 한인들의 수필에는 바로 이러한 미묘한 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한인들의 마음의 균열이 진솔하게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민 1세의 꿈은 필연적으로 2세에게 향했다. 그들은 부모세대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며 이 땅에서 날개 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 싶었다. 그들만은 캐나다인 속에서 주눅 들지 않으며 자신감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기대했다. 또한 그날이 오면 잃어버린 부모의 꿈도 보상받으리라 생각하며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도 뿌듯할 수 있었다. 때문에 그 어떤 노동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며 2세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다.

그러나 늘 막연한 두려움이 따라 다녔다. 법적으로나 제도상으로는 인종차별이 없어 보이지만 개인적인 인종차별로 인하여 2세들의 장래가 불투명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란 그들이 부모의 얼굴 색깔로 인해 부당한 대우와 차별로 상처받고 불공평한 기회로 승진이 제한될까 늘 염려될 수밖에 없었다.

30) 조정남, 앞의 논문, 117면.

31) 윤인진, 「토론토지역 한인의 생활과 의식」, 11면.

그러한 우리의 기우와 불안을 통쾌하게 물리쳐준 이가 오늘의 클락슨 여사다.³²⁾

원옥재의 수필은 이민생활의 애환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수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위에 인용한 「꿈을 세우며」에는 이민 1세들의 거주국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과 2세를 향한 헌신적인 교육과 기대, 그리고 2세들이 캐나다 주류사회에서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부당한 대우와 차별에 대한 불안감이 잘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 2세들이 받게 될지도 모를 부당한 대우와 차별 때문에 진전공공하는 이민 1세들의 심정과 「디딤돌 농기」의 삶이 잘 표현되고 있다. 박순배의 「나이이agara 폭포처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민 1세들은 2세들의 성공을 위해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윤인진은 캐나다 이민 1세들의 사회적응양식을 「디딤돌 농기」로 표현한 바 있다. 즉, 자신들의 중류층적 배경과 높은 신분상승욕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사회에서 이민자로서 겪는 불이익과 차별에 부딪치자 자녀들의 주류 사회 참여를 위해 자신들은 당대에서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녀세대의 성공을 위해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억제된 신분 상승에의 욕구는 자녀세대에게는 부채의식으로 전승되어 사회경제적 성공에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³³⁾

3. 민족정체성 인식

캐나다의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는 자연스럽게 한인들로 하여금 민족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인종 또는 민족의 공존을 상정하게 될 때 분명히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자아와 타자, 중심과 주변, 다수문화와 소수문화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정체성이라는 주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³⁴⁾

32) 원옥재, 「꿈을 세우며」, 『낯선 땅에 꿈을 세우며』, 선우미디어, 2003, 189-190면.

33) 윤인진, 앞의 책, 315면.

34) 박홍순, 「다문화와 새로운 정체성-포스트콜로니얼 시각을 중심으로」, 오경석 외, 『한국

박민규는 “이민문학에 있어 어느 이민세대이건 자아확인론 이민문학의 화두”³⁵⁾라고 했다. 이는 맞는 말로서 한인작가들에게 있어 ‘자아확인’, 즉 민족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주제이다.

여동원은 민족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형상화한 수필가다. 그의 「외국병」이란 수필은 캐나다에서 접촉하는 이질문화 속에서 입맛, 강산, 문화, 조상, 역사 등의 차이를 느끼며,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라고 인식하는 이민 1세의 민족정체성 의식을 잘 보여준다. 그는 서양인이 되기 위해 서양에 온 것이 아니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나’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 것만이 좋다가 아니라, 내 것이란 본질이 있다 그 말이다.

서양사람 입맛에 맞는 사라다가 있고, 일본인이 즐겨먹는 다꾸양이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구미에 맞는 김치가 있는 것처럼.

진달래 피는 그 언덕 그 골짜기는 누구의 것이며, 석굴암과 팔만대장경은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을지문덕과 충무공과 세종대왕은 누구의 조상이며, 5천년의 그 긴 시간은 누구의 역사인가?

무지개가 바다 건너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된 것 같다, 좁은 늦었지만 .

나는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본다. 서양인이 되기 위해 내가 서양에 왔는가고……. 나는 내 것인 채 서양에 살고 싶은 것이다. 애국의 길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³⁶⁾

이처럼 이민 1세대들은 자신들이 캐나다시민권자이며, 스스로 자신을 ‘캐나다한인’이라 부르는 호명과도 상관없이, 그리고 거주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적 정서적으로 여전히 한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김두섭의 지적처럼 “한국인 이민자들이 캐나다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법적으로 캐나다인이 되었고, 자녀들을 캐나다학교에 보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에서의 다문화주의』, 117면.

35) 박민규, 「캐나다 한인 문인협회와 한인 이민문학」, 『캐나다문학』 제10집, 캐나다한인문인협회, 2001, 210면.

36) 여동원, 「외국병」, 『이민문학』 제2집, 캐나다한국문인협회, 1979, 108면.

캐나다사회에의 통합이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³⁷⁾ 실로 이민 1세대들은 한국인으로서의 혈통적 순수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서 자라고 교육받은 한국에서 성인이 된 이후 이민을 한 세대이기 때문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국인으로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아마도 모국이란 내 어머니의 품속 같아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곳, 그래서 언제나 가고 싶은 곳, 가서 안기고 싶은 곳이라. 아직도 내 나라와 달리 피부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긴장하며 대하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관습과 사고방식을 접할 때가 많으니 모국이라 부르기에 어설피다.³⁸⁾

그들은 모국인 한국에 대해서 “내 어머니의 품속 같아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곳, 그래서 언제나 가고 싶은 곳, 가서 안기고 싶은 곳”이라는 정서적 일체감을 느낀다. 반면 거주국인 캐나다와 캐나다인에 대해서는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 짐작할 수 없는 관습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한다. 즉, 편안하지가 않다. 모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원옥재는 ‘편안한 신발’로 비유하기도 한다. “언어와 관습과 음식문화와 민족성”이 같다는 것은 서로에게 설명 없이도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³⁹⁾ “한인교포들은 이민 후에도 고국에 대한 미련과 향수를 버리지 못하며, 사회생활, 가족관계, 여가 등에서 한국식의 생활을 계속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⁴⁰⁾는 태도, 이는 정체성 유지라는 의식적인 측면도 있고,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즉 무의식적인 측면도 있다.

백경락⁴¹⁾은 「나의 눈물」에서 애국가를 듣거나 태극기를 보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생리현상처럼 눈물이 울컥 솟아오른다고 고백한다.⁴²⁾ 캐나다의 국가와 국기에

37) 김두섭,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제21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98, 171면.

38) 원옥재, 「코리아 캐나다인」, 앞의 책, 252-253면.

39) 원옥재, 「편안한 신발」, 위의 책, 173면.

40) 김두섭, 앞의 논문, 172면.

41) 백경락은 1972년에 이민했고, 제 9대 문협회장을 역임했으며, 1979년에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대한 예의에서는 그런 감정과 현상이 없는 것과는 다른, 정체 모를 감정이란 바로 조국과 정서적으로 일체화되는 순간에 갖게 되는 무의식적인 유대감일 것이다. 강신봉도 조국이 패망하여 난민이 되어 떠도는 월남 난민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언제고 돌아가고픈면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는 어머니 마음 같은 관용”⁴³⁾이 있고, 그리움의 여운이 서려 있는 조국이 건재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사실 이민자들에게 떠나온 조국은 시집간 여자의 친정처럼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조국의 건재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조국의 국력 신장은 그들의 거주국에서의 삶과 지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월드컵이 해외 동포들에게 안겨준 큰 선물은 2세들에게 정체성을 찾아준 데 있다. 1세들이 노력과 교육으로 줄 수 없었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이번 기회에 그들 스스로 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 6월에 우리의 2세들은 1세들 못지않게 열렬한 팬이었고 응원자였다. 아들에는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모든 게임을 시청했고, 유럽에 있던 딸에도 교장의 배려로 직원회의까지 연기해주어 근무시간에 있던 한국게임을 모두 시청할 수 있었다 한다. 길에서 마주치는 행인과 가게 손님들이 코리아의 승리를 외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릴 때마다 한국전쟁과 IMF의 치욕에서 벗어난 우리의 콧대를 드높여 주었다.⁴⁴⁾

2002년 월드컵 때 1세뿐만 아니라 2세도 같이 응원하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고백은 스포츠가 한글교육보다도 민족정체감에 대한 동일시를 폭발적으로 환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임을 웅변한다.

캐나다한인들은 모국에 대해서 강한 정서적 애착과 일체감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국의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내의 편협한 국적 시비에 대해서 여동원은 “과거 우리의 쇠국은 힘센 열강에 에워싸인 작은 한반도에서 국토와 민족을 끈질기게 유지해온 원동력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세계가 1일 권내로 좁아져버린 지구촌 시민으로 살아갈 오늘의 우리에게는 되레 무거운 짐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국적문제에 한국이

42) 백경락, 「나의 눈물」, 『캐나다문학』 제 13집, 138-139면.

43) 강신봉, 「조국의 재발견」, 『캐나다문학』 제12집, 154면.

44) 원옥재, 「Curly 안」, 앞의 책, 250면.

보다 전향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⁴⁵⁾

즉, 국적문제에 대해 모국이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의식을 가져줄 것에 대한 당부이다. 다시 말해 이민 1세대들은 그들이 캐나다 시민권자임에 분명하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모국으로부터 차별 없이 한국인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세계로 흩어진 한민족의 힘은 곧 국력 신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이 국적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손정숙도 충고한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가 아닌가? 국민의 반 이상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힘을 길러 조국의 번영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유대인처럼 국토와 국민을 좀 더 넓게 보는 안목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외국 시민권자도 자유롭게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⁴⁶⁾

손정숙의 「내 영혼의 고향」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취소되자 쓴 수필로 여겨지는데, 한국이 재외동포를 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1세대에게 2세들의 타민족과의 결혼은 가장 큰 갈등을 유발한다. 혈통의 순수성이 민족정체성 유지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1세대에게 있어 자녀들의 타민족과의 결혼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갈등적 요인이다.

그 하이웨이가 나를 외롭게 만들던 그 시절, 큰 딸이 타민족의 사람을 배필로 맞았다. 절망이 무엇인지 그때 절감했다. 침식을 잊고 누웠다. 하이웨이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와 지하실 보일러의 웅웅거림, 냉장고의 카랑카랑 마른 소리들이 합세하여 나를 고문하던 무서운 밤들을 잊지 못한다.

몇 달 전에 막내딸이 결혼했다. 이번에도 타민족 사위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많이 변해 있었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주었다. 하객들의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하는 나를 보며 제일 기뻐한 것은 아이들이었다.⁴⁷⁾

45) 여동원, 「국적시비」, 『옹겨심은 나무들-이민문학』 제7집, 190-192면.

46) 손정숙, 「내 영혼의 고향」, 『아니온 듯 다녀가는 길』, 신세림, 2001, 100면.

큰딸이 타민족의 사위를 맞게 되었을 때와 막내딸이 타민족의 사위를 맞게 되었을 때의 심경이 비교되면서, 작가 장정숙은 내심으로 그런 변화가 있기까지 '18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고 독백한다. 하지만 2세들의 타민족과의 결혼은 불가항력이며, 결국은 그 사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1세들의 고민이 있다. 따라서 한인들끼리의 결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인정하며, 자녀들의 타민족과의 결혼에 대해 타협적인 사고를 내비치기도 한다.

부모-자녀 사이의 갈등은 비단 결혼문제만이 아니다. 이민 1세와 2세 사이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대 간에 의사소통과 정서적 교류가 불완전해지고 갈등이 유발된다. 1세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서는 1.5세보다는 2세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⁴⁷⁾

어렸을 적인 단순한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되었다. 이젠 어른으로 발돋움하여 달음질치려 하는 그들에게는 정신적 조연이 더욱 필요한 때다. 그들과 많은 얘길 나누고 싶다. 신앙, 취미, 이성교제, 동양의 미덕,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생활철학……. 그것이 내 욕심이기엔 고통이 크다. 대충 영어와 한국어를 공용하여 생활 속의 사사로운 감정까지 교류되기는 한다. 허나 그들에게 좀 더 깊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어느 언어로도 만족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 시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⁴⁸⁾

일반적으로 언어는 민족성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민족 집단의 언어 동화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로 여겨져 왔다. 민족어를 통해서 한 민족 집단의 문화적 가치와 민족 주체성이 세대에 걸쳐 전승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민족어를 어느 정도 잘 하느냐는 민족 문화와 정체성이 세대 간에 지속될

47) 장정숙, 「하이웨이」, 앞의 책, 13면.

48) 이민 1세의 51.4%가 의사소통에 약간의 어려움 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이민 2세의 76.9%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민 1.5세는 그들의 이중언어 능력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윤인진, 앞의 책, 310면.)

49) 원옥재, 「언어의 벽」, 앞의 책, 113면.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⁵⁰⁾

또한, 이민 1세에 있어 음식문화는 생활영역에서 한인이라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⁵¹⁾ 실제 이민 1세들의 수필에는 쌀밥, 김치 등 한국의 전통음식에 대한 애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치는 ‘한국을 상징하고, 한국을 보여주는’⁵²⁾ 대표음식으로서 이를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해. 김치를 좋아하는 며느리는 한국말이 서툴더라도 분명 한국사람의 아내이니 저도 한국사람이지. 그 애들의 아이들도 김치를 먹게 될 거야. 김치 먹는 손주들에게 한국말도 열심히 가르쳐야지.” 나도 모르게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⁵³⁾

오강남은⁵⁴⁾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규정하는 절대적 요인, 즉 정체성 규정에 있어 혈통, 언어, 습속은 더 이상 절대적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2세로 넘어가면 한국인으로서의 혈통의 순수성도, 한글의 사용도, 한국인으로서의 습속도 더 이상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재외한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고민의 하나이다. 그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고양과 유지에 단군의 자손,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조상으로 가진 민족임을 자각하는, 다시 말해 한국의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 현실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았다.⁵⁵⁾ 즉, “민족의 역사에식에 기초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동렬은 한국의 옛시조 180수를 뽑아 현대적으로 풀이한 『세월에 시정을 신고』

50) 윤인진, 앞의 책, 309면.

51) 위의 책, 314-315면.

52) 홍기만, 「김치이야기」, 『이민문학』 제5집, 캐나다한국문인협회, 1989, 133면.

53) 신영봉, 「김치 만들기」, 『캐나다문학』 제11집, 캐나다한인문인협회, 2003, 199면.

54)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교수.

55) 오강남, 「캐나다한인의 민족의식과 모국관」, 『캐나다연구』 Vol.4,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캐나다연구센터, 1992, 109면.

(2002)라는 수필집을 발간한 바 있다. 그밖에도 그의 수필에는 한국과 동양의 고전에 대한 인유가 매우 풍부하며, 한국의 가곡, 대중가요 등을 인용하고 풀이하는 수필들도 많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는데, 그 의도란 바로 한국인의 정신적 자산을, 즉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캐나다한인들이 계승하자는 함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는 전지구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시대이다. 재외한인들은 몸은 비록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거주국의 정치, 사회문제보다도 모국의 정치, 사회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⁵⁶⁾ 등 모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커다란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이들의 민족적 유대감 조성과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들의 증대된 힘을 모국 발전에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4. 경제적 어려움의 토로와 문화충격

한인들은 캐나다의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집단에 비교해서 매우 높은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받은 대학교육은 캐나다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들의 전공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자신의 전공과는 달리 단순노동, 판매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자영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인들의 고용상태는 불안정하며, 근로소득도 캐나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에 훨씬 못 미친다. 즉, 한인들은 캐나다의 노동시장에서 자신들의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으며, 낮은 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⁵⁷⁾

구체적으로 한인 취업자들의 61%가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소매업, 숙박요식업, 기타 서비스업의 세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한인들의 고용상태는

56) 김두섭, 앞의 논문, 173면.

57) 윤인진, 앞의 책, 300-307면.

25.9%가 정규직 근로자이고, 32.1%가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캐나다 전체 취업자의 33.9%, 소수민족 전체 취업자의 29.9%가 정규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인들이 고용상태는 다른 민족 집단보다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면에서도 정규직의 경우 캐나다 정규직 근로자 평균근로소득의 75%에 불과하며, 비정규직의 경우도 84%로서 한인의 평균개인소득은 캐나다 전체인구 평균개인소득의 67%에 불과하다.⁵⁸⁾

한인들의 수필에는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중하층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민에 대한 회의가 잘 드러나고 있다. 어디 하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타국에서 겪어야 하는 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에 대한 토로, 그리고 이민 자체에 대한 회의에 이르기까지 이민생활의 이모저모가 숨김없이 표출된다.

망해버렸다. 한마디로 먼지 한 톨 안 남기고 알거지가 돼버리고 말았다. 2년 동안의 불황 중에서도 미어지고 터지도록 잘되던 술집이 어느 날 갑자기 요상한 마가 끼어 두 달 치 가게 세를 못 내게 되니 빌딩 층에서 30만 달러짜리 술집 문을 하루아침에 덜커덕 닫아버리고 만 것이다.

이러고 보니 이민 15년 동안 뼈 빠지게 마련했던 번듯한 집 한 채가 날아가 버리고, 두 대의 자동차는 물기지가 밤새 집어가고, 크레딧 카드는 모두 취소당했다. 난생 처음 여기저기에 빗까지 짹어지게 되니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은행들의 무서운 빛 독촉에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컹당 내려앉는 심장병이 생기고 사람들조차 만나기 두려운 협심증까지 생기게 되었다.⁵⁹⁾

인용문은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돌아가는 사회시스템과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잘 보여준다. 사실 캐나다한인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실하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경우에 지원을 요청할 곳이 전혀 없다.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1969년에 캐나다로 이민한 손정숙은 남편이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의과대학 교수직을 얻었으며, 자신도 한국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았지만 다시 그곳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한 후 병원에 영양사로 취업한 경우이

58) 위의 책, 302-307면.

59) 신익근, 『읽고보니』, 『이민문학-옹겨심은 나무들』 제7집, 177면.

다. 그는 이민 1세로서는 캐나다 주류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었으며, 2세들을 변호사, 의사, 교사 등 주류사회에 진입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그가 캐나다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캐나다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받은 학위나 직위가 인정되지 않고, 캐나다의 규격에 맞는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면 쓸모없어지는 현실, 특히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로 전락해야 하는 이민 현실을 직시하고 그 자신이 그곳 대학에서 재교육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민 초기에는 누구나 다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한국에서 받은 학위나 직위는 이곳에서 빛을 볼 수가 없다. 이곳에서 정한 규격이 아니면 어떠한 기술이나 능력도 쓸모가 없다.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로 전락하여 남의 밑에서 일해야 되는 자격지심이 그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이라고들 한다.⁶⁰⁾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이민한 성우제는 ‘이민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이민에 대해서 냉철한 의식을 가질 것을 충고한다. 그는 “캐나다로 건너온 이들 가운데 90퍼센트 이상은 꿈과 실제 사이의 차이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냉정한 현실”⁶¹⁾이라고 지적한다. 가령, IT업종에 종사한 30대 초반의 이민 기술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늘거나 단순 직종에 종사하는 등 신규 이민자의 취업문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지는 현실을 정확한 통계 숫자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통계청은 3-4개월마다 이민자 취업 현황을 발표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민 온 신규 이민자 가운데 60퍼센트는 이전 경험과 무관한 판매·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문직종에 종사했던 고급인력들이 캐나다에 와서는 단순노동자로 전락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2000년을 최고점으로 매년 이민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고, 역이민자의 수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그는 “지금 캐나다에 이민을 오려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고, 석·박사학위를 지니고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로 캐나다에 오자마자 바로 취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⁶²⁾라고 이민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 것을 당부한다. 소위 점수제 이민제도가

60) 손정숙, 「완전 카우 밀크」, 앞의 책, 217면.

61) 성우제, 「이민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앞의 책, 79면.

도입된 이후 독립이민(기술이민)은 현재 100점 만점에 75점의 커트라인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기업·투자 이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한다. 그는 “자연, 교육, 의료, 음식, 환경은 캐나다가 좋아. 그런데 나머지는 한국보다 다 나빠”⁶³⁾라고 단적으로 표현한다.

문화충격(cultural shock)이란 완전하게 다른 문화권으로 옮겼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이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말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어 예전에 사용했던 것들이 쓸모가 없게 느껴지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 판단 기준이 혼동되는 것 또한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이다. 문화충격을 겪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슬픔과 외로움, 향수병, 불면증, 우울증과 무력감, 감정의 기복과 대인기피, 정체성 혼란, 문제해결능력 불가능, 자신감 소멸, 불안감 증진⁶⁴⁾ 등이다.

“이전에는 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요즘 길가에 뒹구는 돌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것 같다. 누군가의 발길에 채이면 아무렇게나 굴러가다가 잡초 사이애나 끼어 혼자 울 것 같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나는 이방인인가…….”

(중략)

그 이방인 의식은 나를 괴롭혔다. 나는 내 바짓가랑이에 묻은 노란 머리카락에도 몸을 떨었다. 백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땅에 온 나이 경솔함을 한탄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그들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보다는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였다. 큰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 간간하게 따지는 백인들, 그리고 뒤 바늘만 제 손으로 꿰매면 되는 물건을 교통비 쓰고 찾아와서 기어이 바꾸어야 하는 그들에게 아동복을 팔면서 나의 동양적 가치관은 송두리째 무너져 가고 있었다.⁶⁵⁾

62) 성우제, 「누가 캐나다를 ‘천국’이라 하는가」, 위의 책, 86면.

63) 성우제, 「내가 외국에 산다고?」, 위의 책, 95-96면.

64) 은숙 리 자엘펠더,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양서원, 2008, 34-35면.

65) 장정숙, 「산다는 것」, 앞의 책, 94-95면.

장정숙의 「산다는 것」에는 문화충격의 전형적인 증세들이 잘 표현되고 있다. 자신에 대해서 쓸모없다고 느끼는 감정, 외로움, 백인에 대한 혐오감, 이민을 선택한 자신의 경솔함에 대한 한탄, 백인과의 언어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 가치관의 혼란, 현실에 대한 굴욕감, 좌절감 등등……. 짧은 글 속에 이민 1세로서 이민 초기에 겪었을 문화충격의 다양한 증세들이 잘 표현되고 있다.

한인 수필가들의 작품 속에 유독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그린 작품이 많은 것도 단순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기보다는 이질문화와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심리적 도피기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민자들에 고향은 쉽게 찾아가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절절한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에 대해 무한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설사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나, 말하기 어려운 사연으로 고향을 스스로 등지고 말았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마음속으로 가상적이거나 환상의 고향을 간직하고 거기에 정을 쏟고 그리워하는 경우를 간간히 볼 수 있다. 66)

자녀교육은 캐나다로의 이민 동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67) 그런데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의 자녀교육의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의 ‘사랑의 매’가 캐나다에서는 ‘아동폭력’으로 간주됨으로써 한인 1세대는 자신들의 부모 역할에 대해 커다란 혼란과 가치관의 아노미를 겪으며, 이민 자체에 대한 회의에 휩싸이기도 한다.

다음날 나는 다시 불러 나갔다. 진희 아빠는 너무 당당해 보였고, ‘사랑의 매’가 왜 법에 걸리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하였다. 아빠의 영어가 훌륭하였으나 통역을 통해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또 기록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시간에

66) 이동렬, 「능금꽃 피면」, 『이민문학』 제6집, 캐나다한국문인협회, 1992, 198면.

67) 윤인진, 앞의 책, 298면.

결친 아동사회복지사와 부모와의 면담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자녀교육방법을 서로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데 팽팽히 맞서기만 하였다. 결국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이들을 때리고 공포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캐나다 아동보호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일단 이 사실을 안 이상 조사할 수밖에 없고 아동보호소에 연락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⁶⁸⁾

하지만 여동원은 『동 버릇 서 버릇』에서 “동양과 서양이 서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장점들의 조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미래의 세계는 아닐는지”⁶⁹⁾라며 동·서양문화의 장점을 혼합하는 데서 이중정체성을 가진 캐나다한인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캐나다 사회를 더 잘 알게 되고 그에 동화되면서 두 사회의 관습과 가치관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습과 가치관도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김으로써 동·서양의 좋은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심적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다.

사실 이민 1세대들은 한국으로부터 습득해왔던 생활관습이나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민족문화의 계승과 정체성 유지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거주국에서의 빠른 정착과 문화적 적응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는 모든 민족이 자신의 민족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복합사회의 충실한 일원이 되도록 기대한다. 따라서 캐나다한인들도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의 민족중심적인 성향을 탈피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 캐나다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한인사회의 존속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⁷⁰⁾

68) 민혜기, 『사랑의 매가 법에 걸리다니』, 『토론토에서 히말라야 고산족 마을 따라』, 144-145면.

69) 여동원, 『동 버릇 서 버릇』, 『이민문학』 제5집, 캐나다한국문인협회, 1989, 181면.

70) 김두섭, 앞의 논문. 176면.

5. 결론

캐나다한인은 중국의 조선족이나 재일한인, 러시아CIS고려인과는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배경과 시기가 다르다. 즉, 아시아지역의 디아스포라는 대체로 일제 식민지하에서 정치적, 경제적, 또는 기타 압박 요인에 의하여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캐나다한인의 디아스포라는 1960년대 말 이후 경제적 정치적 후진국이었던 한국을 벗어나 좀 더 질 높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캐나다한인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이민한 캐나다가 사회복지 및 의료시스템이 잘 원비된 훌륭한 국가이며, 다문화사회로서 유색의 소수민족 이민자들에게도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긍정적 거주국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귀국을 별로 희망하지 않고 캐나다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데서도 잘 확인된다. 이 점은 비자발적인 이산을 겪은 아시아지역의 이민 1세대와는 상이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재일한인 1세대들이 일본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으며, “일본에 있는 것(재일)을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일시적인 일로 생각해”⁷¹⁾ 온 것과는 다른 태도인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이주한 한인들은 귀국이 목표가 아니라 거주국에서의 빠른 적응과 정착이 목표이다.

한편 한인들의 수필에는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다문화주의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불가시적인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의식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민 동기의 하나가 자녀 교육과 성공이라고 할 때에 2세대들이 주류사회 진입에서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부당한 대우와 차별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기도 한다.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한민족의 혈통을 동시에 인정하는, 즉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캐나다한인들은 거주국에서의 성공적 정착을 지향하면서도 그들의 내면에서는 정서적으로 한인으로서의 강한 민족정체성과 애착, 그리고 생활습속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 글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

71) 이연숙, 「디아스포라와 국문학」, 『민족문학사연구』 제19집, 민족문학사학회, 2001, 65면.

하지만 이민 1세대들이 민족정체성이 계속 유지되길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2세로 넘어가자 더 이상 혈통의 순수성도 지켜질 수 없고, 민족어의 사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데 그들의 고민이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규정에서 혈통, 언어, 습속이 더 이상 절대적 요인이 될 수 없다면,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고유한 민족문화를 유지·계승시켜 나가야 할 캐나다한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이다.

또한 캐나다한인들의 수필에는 고학력의 교육 수준에 걸맞은 직업을 갖지 못함으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질적인 문화와의 접촉에서 야기되는 문화충격이 솔직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민 2세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면 한국어로 글쓰기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민 1세 중심의 캐나다한인문단에서 한국어로 글쓰기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며,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계승·고취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한인문학 그 자체가 이미 캐나다한인들의 훌륭한 정신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한인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민족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고 고양·유지시키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사명을 띠고 있음을 자각하는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1.5세, 2세들의 현지어로의 글쓰기를 고무하는 일도 1세대들이 맡아야 할 역할이다. 그들은 유창한 영어(불어)로 캐나다한인이라는 이중정체성을 개성과 장점으로 활용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캐나다 주류문단은 물론이며, 세계문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캐나다한인, 캐나다한인수필, 이민문학, 민족정체성, 다문화주의, 디아스포라, 재외한인문학, 이중정체성

<참고문헌>

*자료

- 캐나다한국문인협회, 『새울』 제1집, 1977.
캐나다한국문인협회, 『이민문학』 제2집, 1979.
캐나다한국문인협회, 『이민도시』 제3집, 1980.
캐나다한국문인협회, 『이민문학』 제4집, 1981.
캐나다한국문인협회, 『이민문학』 제5집, 1989.
캐나다한국문인협회, 『이민문학』 제6집, 1992.
캐나다한국문인협회, 『이민문학- 옮겨심은 나무들』 제7집, 1995.
캐나다한국문인협회, 『캐나다문학』 제8집, 1997.
캐나다한인문인협회, 『캐나다문학』 제9집, 2000.
캐나다한인문인협회, 『캐나다문학』 제10집, 2001.
캐나다한인문인협회, 『캐나다문학』 제11집, 2003.
캐나다한인문인협회, 『캐나다문학』 제12집, 2005.
캐나다한인문인협회, 『캐나다문학』 제13집, 2007.

- 민혜기 『흔들렸던 터전 위에』, 나눔사, 2006.
성우제, 『느리게 가는 버스』, 강, 2006.
손정숙, 『아니온 듯 다녀가는 길』, 선우미디어, 2001.
원옥재, 『낮선 땅에 꿈을 세우며』, 선우미디어, 2003.
유인형, 『캐나다에서 온 편지』, 단국대출판부, 1999.
이동렬, 『꽃 피고 세월 가면』, 선우미디어, 2006.
장정숙 『어머니의 딸』, 선우미디어, 2005.
장정숙·민혜기·원옥재 3인 동인지, 『세 여자』, 선우미디어, 2009.
한순자, 『나이만큼 행복한 여자』, 태인문화사, 2004.
-----, 『토론토에서 히말라야 고산족 마을을 따라』, 나눔사, 2006.
-----, 『바람 부는 들판에 서서』, 선우미디어, 2008.

*논저

- 김남석, 「캐나다한인문학비평의 전개양상연구」, 『우리어문연구』제34집, 우리어문학회, 2009. 5, 93-127면.
- 김두섭,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제21집 2호, 한국인구학회, 144-181면.
- 김정훈, 「캐나다한인시문학연구」, 『우리어문연구』제34집, 우리어문학회, 2009. 5, 39-66면.
- 송명희, 「캐나다한인문단의 형성」, 『우리어문연구』제34집, 우리어문학회, 2009. 5, 7-38면.
- 오강남, 「캐나다한인의 민족의식과 모국관」, 『캐나다연구』Vol.4,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캐나다연구센터, 1992, 97-113면.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2007.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대출판부, 2005.
- , 「토론토지역 한인이 생활과 의식」, 『재외한인연구』제11호, 재외한인학회, 2001, 5-55면.
- , 「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 정체성의 비교연구」, 『재외한인연구』제12호, 재외한인학회, 2002, 5-64면.
- ,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제37집 4호, 한국사회학회, 2003, 101-142면.
- 이동하·정효구, 『재미한인문학연구』, 월인, 2003.
- 이상갑, 「경계와 탈경계의 긴장관계-캐나다한인소설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제34집, 우리어문학회, 2009. 5, 67-92면.
- 이연숙, 「디아스포라와 국문학」, 『민족문화사연구』제19집, 민족문화사학회, 2001, 55-71면.
- 장윤식, 「캐나다 한인사회에서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 『캐나다연구』Vol.4,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캐나다연구센터, 1992, 81-86면.

조정남, 「캐나다의 민족정책」, 『민족연구』제6권, 한국민족연구원, 2001, 117-129면.

Brian L. Evans, 「다문화주의와 캐나다의 아시아정책」, 『캐나다연구』Vol.1,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캐나다연구센터, 1989, 75-86면.

David Bai, 「지역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및 공공정책의 발전:캐나다의 경험」, 『캐나
다연구』Vol.1,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캐나다연구센터, 1989, 53-73면.

Eunsook Lee Zeifelder,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양서원, 2008.

Marco Martiniello,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2002.

Paul Hernadl, 김준오 역, 『장르론』, 문장, 1983.

Wahlbeck, "The concept of diaspora as an analytical tool in the study of refugee
communiti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Vol.28, No.2, 2002.

[Abstract]

Diaspora and Identity in Korean-Canadian Essays

Song Myunghee

This article examines the life of Korean immigrants by referring to "Korean Canadian Literature" published by the Korean-Canadian Writers' Association and the individual collections of essays written by first generation immigrants. Korean-Canadian Essays are more honest than any novel or poem.

Since they keep a dual identity, Canadian and Korean, they cannot be grouped solely into one country. Therefore, they consider their literature to be 'immigrant literature'.

They acknowledge that Canada is a multicultural society which has a wonderful medical welfare system and a social welfare system. Although they were not born in Canada, they accept Canada as their second native country. That is, it seems that they are satisfied with their immigration in general. However, some immigrants confess that behind the multiculturalism, there is some invisible superiority complex and discriminative treatment. Also, it seems that they feel uneasy about unfair and discriminative treatment their children maybe undergo in the society.

Although they call themselves 'Korean-Canadian', many immigrants, especially the first generation reveal their emotional connectedness to their Korean origin. They feel uncomfortable about different complexion, language, custom and a way of thinking. On the other hand, they feel a sense of unity and emotional easiness about their mother country because of food, culture, ancestor and history. They occasionally request that their mother country take

a more flexible attitude toward nationality problems and problems concerning Korean immigrants.

Characteristics in their essays are as follows : First, their essays express calm matters about immigrant, for example, engaging in an independent enterprise or a service industry of sale nevertheless the higher education level, economical difficulty, and skepticism about immigration.

Second, their essays show typical symptoms about cultural shock that appear by moving into a completely different cultural area. That is, a feeling of helplessness about themselves, loneliness, hatred toward white races, regret about immigration, difficulty of communication, a point of difference of thinking, confuse of values, a sense of humiliation about realistic, frustration, etc. are well expressed in them. They frequently describe about homesickness in their essays, it is associated with protecting themselves from cultural shock. On the other hand, their essays sometimes reflect their urge to adapt to the Canadian culture by fusing the cultures of the East and the West.

Writing Korean of Korean-Canadian is very significant because it awakens the Korean identity inside the Korean and consciousness of the Korean race. Besides, Korean-Canadian literature itself is readily a respectable spiritual property of Korean-Canadian. Therefore, Korean-Canadian writers need to write with a sense of duty to inherit the Korean heritage and preserve their Korean identity.

【Key words】 : Korean-Canadian, Korean-Canadian Essays, immigrant literature, national identity, multiculturalism, diaspora, overseas Koreans literature, double identity.

송명희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08-737)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부경대학교

전자우편: songmh@pknu.ac.kr

이 논문은 2009년 8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9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